호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율 최저

광주 52%·전남 43%…울산 99%와 대조

주승용 의원 "최소 월 8만9100원 부담 탓"

국민연금이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호남지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5년 말 2만6500여명에서 2008년 말 2만7600여명으로 3년 동안 1천여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2009년 1년 동안만 8754명이 증가했다가 올 들어서는 8개월 만에 2만8698명이 늘어나 6만5066명(증가율 79%)이 됐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99%, 경기가 95%, 대구가 8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북이 40%, 전남이 43%, 광주가 52%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소 월 8만9100원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이 적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를 폐지하고, 중산층 이하의 계층도 자유롭게 3만원, 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광주와 전남·북 같은 시도의 주민들도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 학생 등이 최소 월 8만9100원(기준소득월액 99만원)에서 최고 33만1200원(기준소득월액 368만원)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수령시기(현재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년씩 증가)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최소 3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 일자리는 어디에…

광주 YMCA와 함께하는 50세이상 일자리 박람회가 14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택·개인·퇴직연금 각종 가입규제 완화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가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10여개 은행인 취급기관을 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이다.

/연합뉴스

김장용 채소값 내림새 "휴~"

1만4000원하던 배추 1포기 5600원으로

무섭게 치솟던 배추와 대파, 무 등 김장용 채소값이 마침내 내림세로 돌아섰다.

14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배추 1포기는 지난주보다 1400원(20.0%) 내린 5600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하나로마트는 물가안정을 위해 포기당 38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다.

한때 하나로마트에서 1만38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춧값이 급격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경기·충청권 등 배추 산지의 출하량이 늘고, 김장배추 예약 판매 등으로 배추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파 역시 산지 출하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1단)은 지난주보다 550원(14.7%) 내린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도 배추 가격의 내림세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1개당 가격이 지난주보다 800원(16.2%) 내린 4150원이다.

이밖에 감자, 백오이 등도 지난주보다 각각 6.1%, 32.1% 내렸고 양파는 지난주와 동일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일과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은 지난주와 변동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포기당 2000원

김장배추 예약판매 농협 광주유통센터

농협 광주유통센터가 김장배추 15만2000포기를 포기당 2000원에 예약 판매하고 있다.

농협 광주유통센터는 14일 김장철 배추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0일동안 김장배추 500t, 15만2000포기를 한 포기당 2000원씩에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주문은 농협 NH쇼핑(www.nhshopping.co.kr)과 센터 홈페이지(www.nh-hanaro.com/gwangju)를 통해 1인당 9~12포기까지 할 수 있다.

예약물량은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광주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된다.

광주유통센터 관계자는 "예약 판매 첫날인 지난 12일 하룻동안 예약자가 1400명에 달했다"며 "예약 물량인 15만200포기는 광주시민 1만3000~1만4000명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월드 12돌 "선물이 팡팡"

오늘부터 열흘간 TV·피아노 등 사은대잔치

호남 최대 복합쇼핑몰 금호월드가 개점 12주년을 맞아 고객 사은 대잔치를 연다.

금호월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동안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대형 LED TV와 흙침대, 세탁기, 피아노,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또 이 기간동안 매장별로 20~50% 특별 할인하고, 신용카드로 구입시 3개월 무이자 행사도 진행한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종이공예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금호월드관리단 관계자는 "금호월드 개점 12주년을 맞아 고객사은 행사를 벌인다"며 "3S 실천운동(Smile, Strong, Surprise)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글로벌 IT기업 줄줄이 광주 방문 지역기업들 해외시장 진출 노린다

한국광산업진흥회, 22개社 초청 수출상담회

캐나다 잉그램 마이크로사 등 광통신·전자부품 관련 글로벌 IT기업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산업 및 전자부품 분야 다국적 해외기업 8개국 22개사와 국내기업 39개사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상담회는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전자부품 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업진흥회와 코트라,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캐나다의 대표적 IT전문 유통기업인 '잉그램 마이크로 캐나다'와 '슈퍼컴'은 북미지역에서 유통시킬 한국 IT제품과 신규업체의 발굴을 위해 참가했다.

또 미국의 테크데이타, 이스라엘 3대 전자제품 유통기업인 니스코 인두스트리스의 자회사인 니스코 프로젝트 일렉트로닉스 & 커뮤니케이션 등 글로벌 IT유통 기업들도 방문했다.

광산업 분야에서는 호주의 네트워크 기반설비 공급업체인 피페 네트웍스가 광주를 방문해 호주 통신시장에 납품할 혁신적인 제품과 한국 파트너사를 발굴에 나섰다.

수출상담회와 함께 IT 마케팅, 국제인증, 바이어 발굴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IT수출상담센터를 운영, 광주·전남 기업들의 해외진출 컨설팅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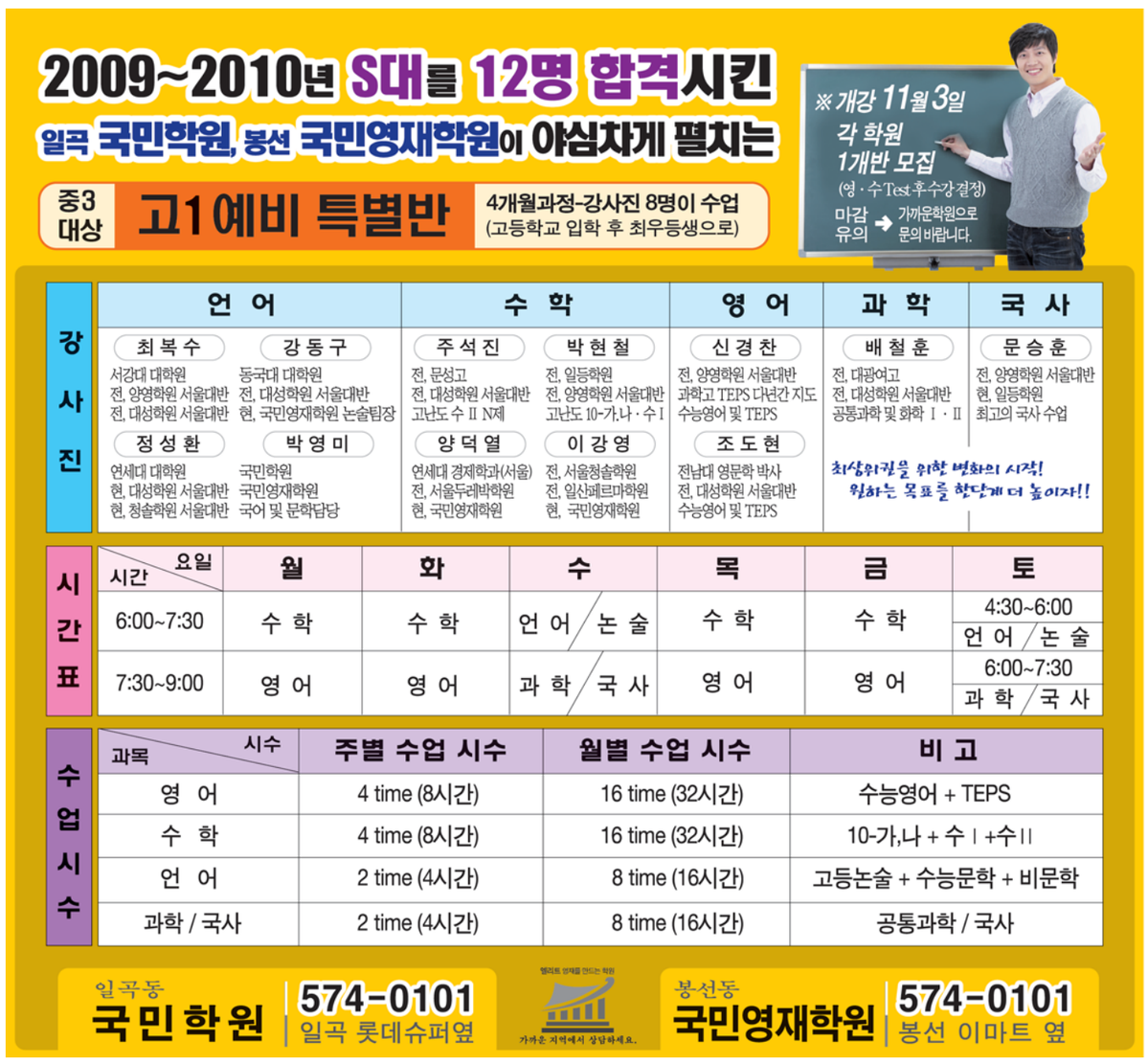
기부금·보육료 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통해 제공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들이 기부금과 취학전 자녀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일일이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려고 발품을 팔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을 비롯해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송기봉 원천세과장은 "기부금 및 보육료 등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내년 1월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가 근로자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저축형 주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왔다.

/연합뉴스